

# ‘돈 봉투 의혹’ 연루 윤관석 의원, ‘보석 청구’

### 민주당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尹 정부 출범 후 첫 현역 의원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5일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부장판사 김정권·김미경·허경무)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아직 윤 의원의 보석 심문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기소 당시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지만, 윤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윤 의원과 함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재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이 있다.

검찰은 지난 4월19일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1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 등을 보강해 5월4일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박씨와 윤 의원 등도 차례로 구속됐는데 박씨는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도 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이 정당했다고 보고 박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항소 심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의원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 사건과 박씨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관측도 나온다. 서선욱기자



### 완도해경, ‘탄소중립 실현’ 금당출장소 전기차 순찰차 배치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정부시책인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주유소가 없는 도서지역 금당출장소에 친환경 전기순찰차를 배치해 청정 지역 맞춤형 순찰 서비스를 제공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여수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서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로 안전저해 행위 등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순천경찰, 민원인 주차난 해소위해 업무협약 체결

순천경찰서는 최근 순천시 삼산동에 위치한 파티움 하우스(구 동부웨딩홀)와 파티움하우스 주차장 사용을 내용으로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 장흥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장흥경찰서는 18일 등교시간에 맞춰 장흥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담양소방, 취약계층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담양소방서는 지난 14일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펼쳐

광주 동부 소방서는 소방차량 출동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8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우발적 범행’ 주장했던 정유정, 첫 공판서 ‘계획범죄’ 시인

### 앞선 공판준비기일서 “계획된 범행 아니다” 주장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박해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시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유정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연두색 수의를 입고, 등근 검정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바닥을 응시하던 정유정은 검찰이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하자, 검찰 쪽을 지긋이 쳐다보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유정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정유정이 말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유정은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갖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 집에는 30대 아줌마가 있었고, 자신이 아닌 그 아줌마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기관에 계속된 추궁에도 정유정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유정은 검찰에 “피해자가 먼저 ‘기초수급자나, 공무원 시험 볼 때 장애인 전형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서로 욕설이 오가다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흉기를 뺏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피해자 집의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14층에 있는 피해자 집에 바로 내리지 않고, 15층에 내려 계단으로 이동했다. 이후 정유정은 13층으로 내려가 승강기를 탑승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 검찰은 정유정이 과의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탐색할 당시 영어 콤플렉스로 인해 영어 교사만 노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유정은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등 과외교사가 많은 과목들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탐색했고, 총 54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증거 목록 중 ‘DNA 감정 내용’을 들어 정유정이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거나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게 되면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를 붙잡기 때문에 손톱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정유정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고로 몸싸움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얼굴을 할퀴었다는 정유정의 진술은 허위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정유정은 수사기관에 계획범죄임을 시인하며 “피해자와 대화하며 ‘함께 죽을 사람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다시 거짓말이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유정은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묻히며, 회피하려

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정유정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공격성이 폭발한 강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측됐다. 또 정신질환인 가능성은 낮게 축적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유정 측은 자신의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진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하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 범죄의 모방 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모방 범죄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재판을 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을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다음 공판의 공개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유정의 여죄를 수사한 경찰은 정유정을 살인예비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범행 수일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복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등의 이유로 예비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같은 중고 거래 앱 채팅을 통해 B(10여)군을 유인하려고 했지만,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의심을 품은 B군이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아 예비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비기자

## 檢, 유아인 구속영장...마약·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

### 프로포폴 200회, 수면제 약 1000정 혐의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

난 12일 유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병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6월9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